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더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칼럼)-美 대선이 유가에 중요한 이유
 - ◇ (칼럼)-부동산과 통화정책, 이주열 총재는 2018 년과 달랐다
 - ◇ (초점)-외환 딜러들의 흑독한 여름나기

발행: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코로나 19 확산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더/프랑스와 르누아르 기자/공동취재단)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7월17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9(%)
달러 대비	1,205.1	0.0%	-4.0%	-3.5%	유로	1.1426	1.1%	1.9%	-2.3%
100엔 대비	1,124.5	-0.2%	-5.5%	-4.4%	엔	106.99	-0.1%	1.5%	0.9%
유로 대비	1,375.1	-1.4%	-5.9%	-1.3%	위안	6.9891	0.0%	-0.4%	-1.3%
위안 대비	172.08	-0.4%	-3.7%	-2.4%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9(%)	다우존스	26,671.95	2.3%	-6.5%	22.3%
코스피	2,201.19	2.4%	0.2%	7.7%	나스닥	10,503.19	-1.1%	17.1%	35.2%
코스닥	783.22	1.3%	16.9%	-0.9%	S&P500	3,224.73	1.2%	-0.2%	28.9%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MSCI APxJP	541.28	-1.1%	-2.1%	15.8%
국고채 3Y	0.812%	-3.7bp	-54.8bp	-45.7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9(bp)
국고채 5Y	1.080%	-4.5bp	-40.0bp	-40.4bp	미국채 2Y	0.143%	-1.4bp	-141.8bp	-93.7bp
국고채10Y	1.348%	-4.9bp	-33.5bp	-26.5bp	미국채 10Y	0.623%	-2.0bp	-128.7bp	-78.1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9(%)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9(bp)
유가(WTI)	40.59	0.1%	-33.5%	34.5%	한국 5Y	23.6bp	-0.8bp	2.6bp	-17.0bp
금(현물)	1,808.90	0.6%	19.2%	18.3%	일본 5Y	17.1bp	-20.9bp	-0.6bp	-4.0bp
TR상품지수	2,301.27	2.1%	-7.4%	4.8%	중국 5Y	43.0bp	-1.3bp	12.3bp	-35.8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티브 호가 기준) ((c)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7 월 20 일(월)>

- 기재부, 부총리 녹실회의(08:00)

<21 일(화)>

- 한은, 6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산업부·관세청, 7월 1-20일 수출입
- 한은,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12:00)

<22 일(수)>

- 기재부, 부총리 2020 세법 개정 당정협의(07:30), 2020년 세법개정안(14:00)
- 한은, 6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23 일(목)>

- 한은,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기재부, 부총리·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08:00), 1차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10:30)

<24 일(금)>

- 특이일정 없음

해외 주요 주간 일정

<7 월 20 일(월)>

- 일본, 6월 수출입 (08:50)
- 일본, 일본은행 6월 통화정책 회의록 공개 (08:50)
- 중국, 1·5년 대출우대금리(LPR) (10:30)

<21 일(화)>

- 일본, 6월 소비자물가지수 (08:30)
- 미국, 6월 전미활동지수 (09:30)
- 호주중앙은행(RBA) 7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10:30)
-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7월 비제조업 경기 전망 서베이 (21:30)
- 러시아, 러시아 주재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브릭스(BRICS) 정상회담 (~23일)

<22 일(수)>

-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서 주디 셸튼·크로스토퍼 월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후보 청문회 (03:00)
- 일본, 7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5월 주택가격 (22:00)
- 미국, 6월 기존주택판매 (23:00)

<23 일(목)>

-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21:30)
- 유로존, 7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 일본 휴장

<24 일(금)>

- 미국, 7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00:00)
- 유로존, 7월 마켓 제조·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6월 건축허가 수정치 (21:00)
- 미국, 7월 마켓 제조·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6월 신규주택판매 (23:00)
- 일본 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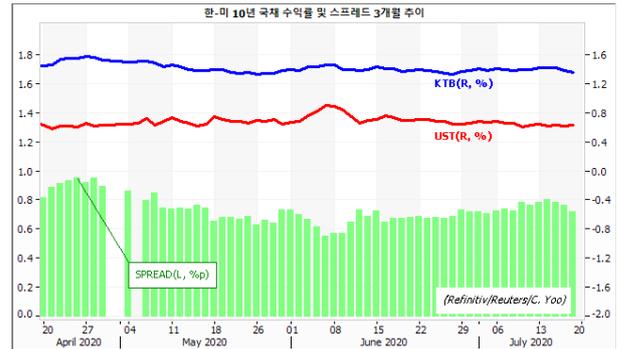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전망>



- 최근 방향성을 잃고 단기 박스권에 갇힌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에도 이런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95-1215 원이다.
-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반작용 여파가 크지 않은 가운데 원화는 최근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는 데 따른 우려에도 코로나 19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긍정적인 소식과 실물경제 지표 반등에 따른 기대가 이에 맞서고 있다.
-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갈등에도 중국 증시와 위안화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모멘텀 확산도 제한되고 있다.
- 이번 주에는 이달 20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들 비롯해 2분기 GDP 속보치가 나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다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주 2분기 성장 부진을 시사한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성장 전망에 대한 경계가 불거질 우려도 있다.
- 대외 경제지표로는 유로존과 미국의 7월 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돼 있다.
- 한편, 주요 기술주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그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채권시장 전망>



- 이번 주 채권시장은 완화적인 금융통화위원회 결과 여파가 이어지며 완만한 강세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결정에 부동산 가격보다 성장과 물가를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여파로 채권 강세가 나타났다. 3년물 금리가 0.80%대 초반까지 떨어지고 10년물 금리는 1.35%를 뚫고 내려가는 등 다시 금리 레인지 하단 부담감이 커졌다.
- 당장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상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 통화정책 스탠스 전환이라는 큰 부담을 덜어낸 만큼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 기대 없이 계속 치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매주 돌아오는 입찰이 여전히 버겁기 때문이다.
-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휴가 일정을 고려해 입찰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잠깐의 여유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 3조원 넘는 국채를 매주 받아내다 한 주 쉬게 되면 그만큼 몸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시점이다.
- 23일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을 발표가 변수가 되겠지만 금통위 기자간담회 때 이 총재가 경제 전망 하향 조정을 예고한 상황이다. 2분기 성장을 속보치는 당초 한은이 밝힌 -2%대 초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칼럼)-美 대선이 유가에 중요한 이유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 - 석유 소비량의 더딘 증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경쟁을 심화시켰고 때때로 점유율 확보를 위한 생산량 전쟁을 일으켜 유가 하락을 초래했다.

현재 러시아,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판데믹 동안 급격한 원유 소비 감소에 대응해 가격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베네수엘라, 이란, 리비아 등 기타 주요 산유국 3 개국의 생산량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 있다.

내전과 미국의 제재는 이들 3 개국의 생산량을 지난 20 년 동안의 최고치에서 각각 감소시켰는데 합하면 거의 일일 500 만 배럴 정도다.

앞으로 유가 안정은 중기적으로 이들 3 개국의 생산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리비아 내전이 종식되거나 베네수엘라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다면 시장에는 일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추가적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 이란에 대한 통상 금지령이 향후 수년 간 유지될 것인지 여부와 사실상 리비아의 원유 수출을 막고 있는 내전 상황의 지속 여부다.

오는 11 월 미국 대선은 이들 3 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이는 유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미국 내 셰일 혁명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생산량을 증가시키며, 유가 급등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셰일 혁명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강

경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의 담력을 키워줬다.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했던 셰일 혁명 이전에는 원유 생산국가에 대한 제재는 유가 급등 리스크를 가졌기 때문에 높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했다. 그러나 높은 셰일 생산량은 이런 리스크를 상당부분 감소시켰다.

동시에 원유 시장에서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배제함으로써 미국의 제재 정책은 셰일업자들이 석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

제재가 없었다면 셰일 혁명은 오랜 전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셰일 혁명이 없었다면 미국 정치인들은 베네수엘라 · 이란 그리고 리비아로부터 수입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을 것이다.

미국의 제재는 셰일업자가 설 자리가 있는 석유 시장을 형성했고 셰일 혁명은 제재 정책의 유용성과 효과를 증대시켰다. 셰일 혁명과 제재 정책은 서로 떼어놓고 분석할 수 없다.

대부분의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대선까지 3 개월 이상이 남았기에 지금 결과를 선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21 년 1 월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은 최소 50% 이상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많은 외교 정책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대중국 정책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좀더 호전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에너지 · 제재 정책 분야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스타일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원유업자들,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베네수엘라 야당 등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외교·정치적 목적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 진영은 이런 이해관계가 거의 없고 아마 그들이 대선 기간동안 적대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내외 원유 관련 정책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는 베네수엘라가 협상을 통해 정치적인 변화를 갖기를 희망할 가능성이 높고 이란과의 새로운 핵 협상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리비아 내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조항을 더해 오바마 정부 때 이란과의 핵 합의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현재의 수출 제재를 더욱 강화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힘이 실릴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동안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리비아 중 적어도 한 개의 국가에 대해 미국의 제재와 수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만약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이 다시 주요 원유 수출국으로 등장한다면 그들은 가격과 생산량 조정 문제에서 미국, 사우디 그리고 러시아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칼럼)-부동산과 통화정책, 이주열 총재는 2018년과 달랐다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중 과잉유동성 문제를 제기했을 때 뜨끔했던 채권 운용역들이 적지 않았던 듯하다.

전개된 모든 상황이 지난 2018년을 연상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부동산에 경도됐던 2018년..2019년엔 급격한 방향 전환

당시에도 부동산이 모든 경제 이슈를 잡아먹고 있었다. 실물경제가 딱히 좋았던 것은 아니다. 한은은 2018년 10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2018년과 2019년 성장률을 각각 0.2%p, 0.1%p 낮춘 2.7%, 2.7%로 제시했다. 일부 금통위원들은 장기간 이어진 저물가가 해소되지 않고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시점이다.

시장의 테마 역시 금융 불균형보다는 경기 불확실성에 맞춰 형성돼 있었고 시장금리는 연일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관심사는 달랐다.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노무현 정권 시즌 2'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에 '금리 인상 필요' 발언을 노골적으로 한 데 이어 여당과 정부의 인사들이 연이어 저금리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는 일이 이어졌다.

그리고 놀랍지도 않게 금통위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다.

하지만 금리 인상 사이클은 꽃도 피워 보지 못한 채 끝이 난다.

한은은 해가 지나자마자 2019년 1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시장도 금통위가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금통위는 2019년 7월과 10월에 한 차례씩 기준금리를 인하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까지 낮추게 된다.

▲좌고우면하지 않은 이 총재..'시장 안정 집중'

시장에는 이 총재와 금통위가 이번에도 부동산 문제에 경도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하와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에서 경기침체의 폭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 코로나 19 확산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아직 정책 변화를 도모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그는 분명히 밝혔다.

국내 경제가 코로나 19 사태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분명히 보일 때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시선을 끌었다.

원론에 가까웠던 홍 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시장참가자들이 불안을 느낀 건 '면피'의 냄새 때문이었다. 정책 당국자들이 부동산 폭탄을 놓고 책임 소재를 돌리며 면피하기 시작하면 거시경제 전반을 보는 적극적인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총재가 이날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되로를 만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보는 이유다. 코로나 19 사태가 끝난 게 아닌데 당장의 자산시장 움직임만 놓고 통화 당국이 좌고 우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이 총재가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와 전대미문의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통화 당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줬다.

낙관적인 전망으로도 최소 내년 말이 돼야 경제가 코로나 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 19에 따른 한국 경제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 19가 진정된 이후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소득 감소와 그로 인한 소비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한은은 재원 조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금리 상승 등 자금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시장이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 능력과 의지에 의심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점에서 이날 한은 총재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전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초점)-외환 딜러들의 혹독한 여름나기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매일 환율과 씨름하는 외환 딜러들은 요즘 곤혹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달 초 1240 원대에서 1190 원대로 급락하면서도 하락 추세를 굳히지 못했던 환율은 그 이후 단단한 박스권을 형성하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상·하단 거래 범위마저 더욱더 좁아졌다. 지난달 7원 수준이었던 하루 환율 변동폭은 이달에는 5원으로 축소됐다.

달러/원 방향성을 시사하는 리스크 리버설(R/R) 콜오버 1개월물 가격은 1% 이하로 밀려 유의미한 해석을 내리기 힘들어졌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먹고 사는' 외환 딜러들에게는 마뜩찮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외환 딜러들의 대응이 어렵다고 할 때는 단순히 시장 변동성이 축소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원래 '불확실' 영역에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시장 예측이 이제는 '불가능' 영역으로 넘어간 듯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레인지인 듯, 레인지 아닌 듯

금융시장 내 코로나 19 위력이 잦아들었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아직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헤드라인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은 춤을 추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정치, 경제, 무역 등 여러 방면에서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은 들쭉날쭉하다.

최근 5거래일 동안 달러/원 움직임을 보면 정확히 하루 단위로 상승과 하락을 오갔다.

A 은행의 외환 딜러는 최근 환율 움직임을 두고 "레인지인 듯, 레인지 아닌 레인지 같은 환율"이라고 표현했다.

그도 그럴 것이 원화와 주요 금융지표들과의 상관성은 크게 낮아져 있다. 최근 20 거래일간 원화와 위안화와의 상관성은 약 0.3, 코스피와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역의 상관도를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달러지수와는 0.1 수준으로 연관성을 거의 찾기 힘들어졌다.

최근 중국 증시 급등에 따른 위안화 강세에도, 유동성 장세에 따른 코스피 강세 모멘텀에도 원화는 뚜렷하게 방향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투입에 따른 전반적인 자산가격 상승에도 신흥국으로의 공격적인 자금 유입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 이머징 쪽으로 자금 유입 아직 아닌 듯

삼성증권의 전균 애널리스트는 "최근 아시아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중국 증시 상승 영향인데, 이것이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따른 것인지, 유동성에 따른 것인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면서도 "중국이 글로벌 경기를 견인하는 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 속에서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이머징 시장보다 선진국 쪽"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MSCI 이머징 전반에 걸쳐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내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매도세는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연속해 한국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은 7월 들어서도 매도 우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요 선진국 주식·채권시장 가격과 펀더멘털 간 괴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 코로나 19 재확산 및 무역분쟁 등 다양한 트리거 요인들이 위험자산 조정을 야기해 금융시장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시장 참가자들은 코로나 19 재확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나스닥지수와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한 중국 증시 등을 보면서 자산시장 거품론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은행 외환 딜러는 "미국 연준의 유례 없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달러 약세에 주목하면서도 주식시장 움직임 등을 보면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를 견을 수 없다"면서 "이렇다 보니 시장은 제각각 움직이고 원화에 대한 모멘텀도 생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여파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전반적인 경상 수급도 쪼그라들어 수급 신호마저 찾기 힘들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중 국내 기업들의 선물환 거래는 293억달러로 2009년 이후 최저치로 급감했고, 3분기 들어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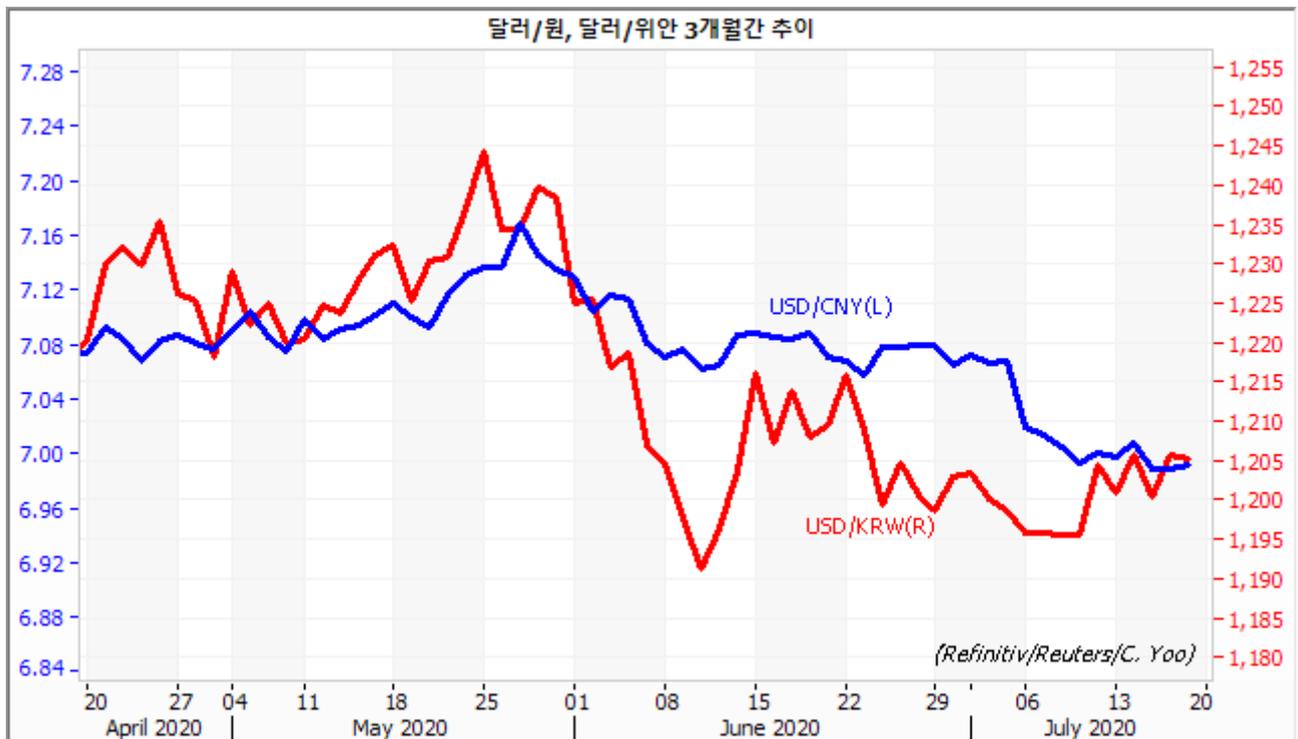
C 은행 외환 딜러는 "코로나 19에 따른 실물경제 타격에도 유동성이 시장을 받치는 가운데 결국 주요국 정책 변화가 현재로서는 가장 큰 변수지만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레벨에 대한 긴장은 줄었지만 현재 시장 상황과 이에 따른 변동성에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어려워진 시장 여건으로 시장의 피로도는 계속 쌓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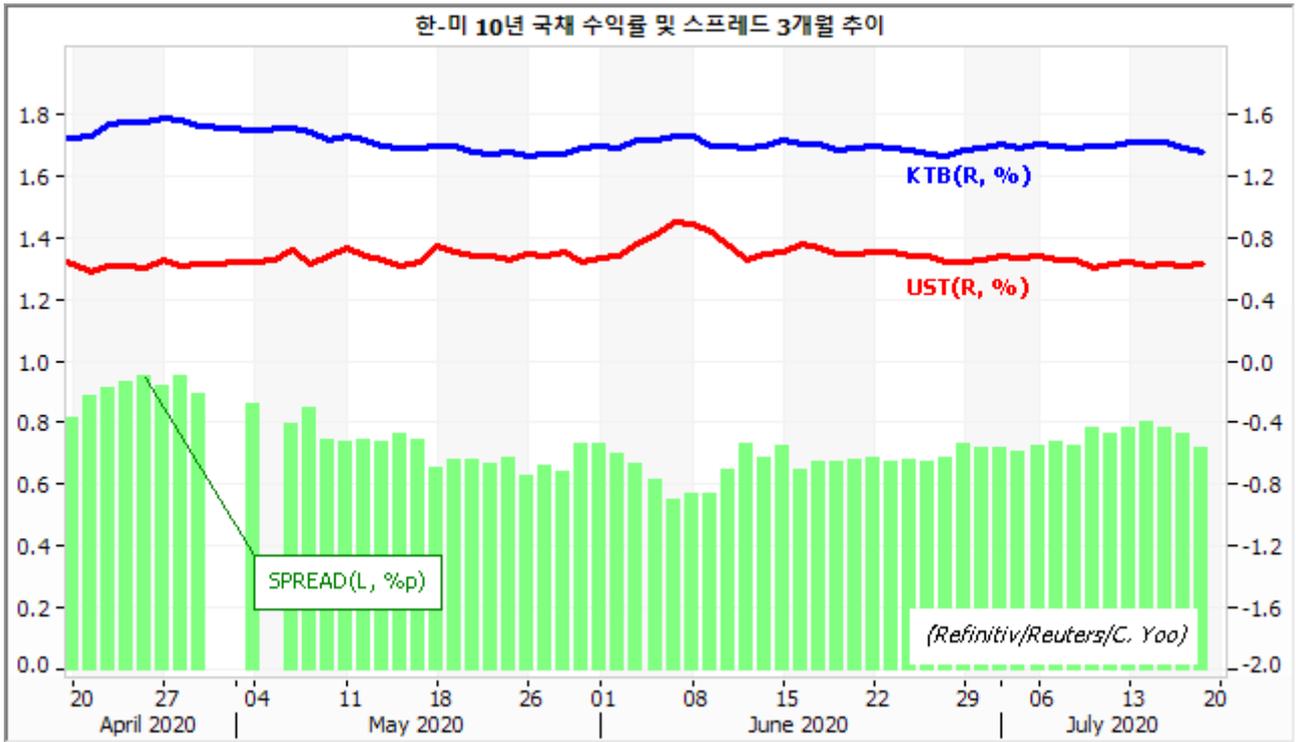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